

통합치료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노남숙(명지대학교)

부 회 장 : 최명선(명지대학교)

총 무 이 사 : 임선자(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이상은(명지대학교)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조민자(명지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송승하(명지대학교) 강진경(명지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정은정(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홍혜영(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양심영(숭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김명선

감 사 : 문소영(명지대학교) 설혜윤(이화여자대학교)

<차 례>

-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사례연구
박소연 · 선우현 5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백슬기 · 홍혜영 29
-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관계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매개효
과-
양성순 · 홍혜영 51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77

<별첨 2> 투고규정 / 80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82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89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사례연구

박소연* · 선우현**

박경호언어심리치료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통한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로 1단계 감각발달 놀이와 2단계 정서발달 놀이 그리고 부모참여놀이로 구성되어 부모가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참여하는 부모참여 상호작용발달놀이치료이다. 연구대상은 CARS 검사 상에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되는 만 3세 남아와 어머니로 구성된 두 대상으로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주 1회 4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매 회기 모와 치료사의 아동에 대한 상호작용 변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고 사전과 사후에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를 실시하였다. 또한 회기내 치료사-아동 간의 상호작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2회기까지의 치료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사전·사후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로 진행된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평정척도 검사결과 연구 참여 아동의 구조,도전,개입,양육 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둘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진행하며 매회기 실시한 상호작용 척도 측정 결과 점수가 증가되었으며 검사결과 긍정적인 점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치료 회기별 과정에서 아동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서 감각발달 놀이 및 정서 발달 놀이, 부모참여놀이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부모참여, 사례연구

* 본 연구는 박소연(2025)의 명지대학교통합치료대학원 석사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개제 신청일 : 2025년 1월 5일 ■최종 수정일 : 2025년 1월 28일 ■개제 확정일 : 2025년 1월 29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에 들어 인간은 출생직후부터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한다(강병재, 2010). 상호작용은 인성의 형성 및 발달에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을 이루는데 중요하다(류귀열, 1998).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관계는 가족관계로 가족 내에서 상호교류하며 연결성을 느끼게 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가족 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이는 이후 아동이 사회성 및 의사소통과 인지능력 등을 발달시키고 적용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KODDI의 통계에 의하면 2024년 한국의 자폐 유병률은 약 2.6%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에는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KODDI, 2024). 자폐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에 효과적이다(이소현, 2009). 또한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는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부모는 아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해야한다(신윤옥, 2007). 주 양육자가 질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은 핵심 요소이지만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부모는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부모 역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하게 되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김차미, 2012). 또한 아동의 낮은 반응성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단절되고 부모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황보연희, 1999). 이에 아동의 발달 증진을 위해 발달센터에 방문하며 다양한 부모코칭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놀이치료에서 부모참여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진다(조영주, 2024).

김미미, 황미영, 선우현(2023)은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사례연구에서 회기 안에 부모 상담을 20분간 진행하는 것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놀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김효선, 김경숙, 선우현(2022)은 모-아동 간의 상호작용 및 행동 증진의 목적을 가진 연구에서 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며, 아동 또한 의도적인 눈맞춤과 주도성 놀이성을 보이는 등 놀이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우현(2008)은 모와의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자폐성 유아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반응에 기대 없이 지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왔던 모가 유아적 언어 촉진 및 몸짓과 표정이 다양해지고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혔다. 또한 모-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촉진되면서 유아 또한 의성어 사용 및 모방, 단어 사용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미정, 이원령(2024)은 부모-아동 상호작용훈련을 통해서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관심을 끄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반응하기 의사소통 기술 및 요구하기, 지시따르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참여를 통한 놀이치료기법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관심사, 감정, 정서의 상호교환 및 반응이 적은 사회정서적 상호교환성이 결핍되어 있고 눈맞춤과 신체언어의 이상 및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능력 결핍이 되어 있으며 타인과 발달연령에 맞게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상동증적 행동과 고정되고 제한된 관심사, 통증 혹은 온도에 대한 무반응 혹은 특정한 소리나 질감에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등 감각적인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반응성이 나타나며 지나치게 사물의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며 시각추구 현상이 보이는 등 감각적 측면에 대한 유별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Grant, R, J., 진미경 외 5인 공역, 2021).

이러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특성 및 부모-아동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관심 시작하기와 관심 나누기, 정서 공유하기 등의 상호작용을 향상할 치료기법으로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기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는 감각발달놀이와 정서발달놀이를 통해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 시켜 눈맞춤 횟수 증가와 미소 및 웃음 증가, 자발적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상호작용 증진할 수 있다(김미미 외 2인,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회기 내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진행하고 10분 간의 부모참여놀이를 진행하는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치료사-모 간의 치료적 동맹을 맺고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MIM)에 나타난 사전-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나타난 회기별 상호작용 척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동들에게서 발달지연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실제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큰 양육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고(김윤지, 2024), 장애아동을 출산했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며, 상호작용 시도의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유미, 2012). 장애를 가진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양육효능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최지영, 양윤란, 김재환, 2004) 장애 아동의 부모는 정상 발달 아동의 부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낮고 열심히 노력해도 눈에 띄게 나아지는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최형성, 2005).

자폐스펙트럼아동은 정상 발달 아동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어 부모-아동 간에 상호작용 단절을 이루게 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어렵다(황보연희,1999). 이는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반응 및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최윤희, 2006).

Winnicott(1963)에 의하면 모와 자녀 사이의 접촉, 자극 등을 통해 모-자녀의 친밀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놀이가 시작되고 놀이 능력이 형성된다.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는 발달 장애아동들의 발달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연령에 따른 아동의 발달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지시적인 행동이 많은데(Mahoney, 1999), 특히 자폐증을 가진 아동들은 사회적 반응성 및 감각운동 기능 등이 낮아 부모들의 상호작용을 하고자하는 동기가 충족되지 않고(선우현, 2008) 이는 아동들이 부모에게 긍정적 상호작용 반응을 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상호작용 반응을 받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금혜진, 2004).

Calhoun, Rose와 Prendergast(1991)는 발달장애 영아와-모 간의 상호작용 지침으로 첫째, 영아 주도 따르기, 둘째 영아 행동 모방하기, 셋째 적절한 의사소통하기, 넷째 적절한 환경 제공하기 총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영아의 주도에 따르고 영아의 행동을 모방해주는 것은 관심시작하기 단계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아동의 주의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고 받는 놀이로 발전해 나아가 관심 나누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아동과의 놀이 속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 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반응해주며 아동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느낌을 주고 적절한 환경이 구성된다면 정서 공유하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선우현, 2008).

2. 부모참여 발달놀이치료

가족은 인간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일차적 환경으로 최초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교육받은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 및 부모참여는 부모의 본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과정이며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다(이도영, 2019). 부모참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와 치료사가 치료적 동맹을 맺고 부모는 치료적 동맹자의 위치에서 치료회기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도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치료사가 회기 내에서 아동과 함께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Grant. R. J. 2021). 부모참여를 통해 부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신뢰하게 되어 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아동들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강선경, 2011).

ABA에서는 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부적응행동 혹은 타인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말하며, ABA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반복되고 학습될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문제행동에 대한 처방으로

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벌이나 보상을 주는 것이다(윤상원, 2024).

응용행동분석(ABA)은 행동수정 및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의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응용행동 분석(ABA)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치료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 이도영(2019)에 의한 응용행동분석(ABA) 기법에선 응용행동분석(ABA)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응용행동분석(ABA)전문가 및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이론교육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의 특성과 응용행동분석 기본원리 및 구체적 전략이었으며, 강화, 벌, 소거 등의 원리와 행동계약 미 타임아웃 등의 전략이 주를 이뤘다. 실습교육은 이론 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한하여 실습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습전준비기질, 기능적의사소통기술, 사회성 기술등이 있었다. 실습교육은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를 위한 치료계획서를 준비하고 직접 중재하였다. 강사는 일방경을 통해 중재 상황을 관찰 및 코칭하였으며 필요시 직접 중재와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개입은 문제행동 발생시 초기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또한 부모를 통한 문제행동 중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며 그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Berkson & Tupa, 2000).

3.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는 아동의 신체감각, 정서, 인지, 언어, 사회적 발달증진을 위한 부모참여 놀이치료 기법으로 상호작용이 기반이다(홍정애, 선우현 2018).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있으며, 1단계는 감각발달 놀이로 감각놀이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있으며, 1단계는 감각발달 놀이로 감각놀이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1단계는 감각발달놀이단계로 치료사의 주도로 풍선 및 수수깡 등의 재료들로 구조화하여 관심 시작하기, 관심 나타내기 단계로 상호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기, 의도를 가지고 함께 기울이기, 행동 드러내기, 상호작용 행동 나타내기 등을 훈련하고 공동주의 증진 및 애착과 상호주관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또한 2차적 상호주관성 촉진을 위해 의도와 행동을 반복하고 숙달하기,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

합하기,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주고받기 훈련을 한다. 1단계 과정 속에서 아동은 신체접촉 놀이, 즐거운 함께 놀이, 모방 놀이를 경험하고 놀이가 촉진되어 놀이로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 공유하기, 숙달감을 통한 자신감 얻고 애착과 상호주관성이 발달 될 수 있다. 2단계는 정서발달 놀이 단계로 아동주도로 놀잇감을 이용하여 치료사-아동간의 놀이가 이루어지며 정서 공유하기, 정서 조절하기, 자발적 주도하기 단계의 상호작용 놀이 기반이다. 애착을 중심으로 정서 공유 및 수용을 경험하고 정서발달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정서를 공유하고 정서 조절 및 자기표현 증진, 타인 수용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2단계 과정 속에서 아동은 정서조절을 돕는 놀이 활동, 즐거움, 자기 주도 놀이경험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 발달이 될 수 있다(김미미 외 2인, 2023).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동질성 확보를 위해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센터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자폐스펙트럼장애 범주 내의 아동으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 표 1 > , < 표 2 >와 같다.

< 표 1 > 연구대상 아동 A의 정보

대상	유아 A	
연령	만 3세	
성별	남아	
가족 관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적이나, 예민한 모습이 있음 ■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 근무를 하며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현재는 일 이 바빠 주말에만 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음 ■ 아동과 신체로 놀이해주는 편임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하고 지시적임 ■ 우울증을 약을 복용중이며,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하였음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동
발달 특징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월부터 걷기 시작함 ■ 시각과 청각이 예민함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알이가 없었음. ■ 첫 단어 '엄마', '아빠'를 12개월에 말하였음. ■ 현재 간단한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여 의사 전달 가능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어린이집을 재미있어하였음. 초기 어린이집 교사에게 똑똑하다는 보고받았으나, 후반에는 까치발을 들고 허공을 바라본다는 보고가 있었음 ■ 36개월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사회성이 낮다고 피드백 받음 ■ 하나의 놀잇감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 친구에게 관심이 없음
	또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놀이함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양육자는 어머니임. ■ 긍정적인 지지와 표현이 미흡하고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높아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여수준이 높음 ■ 엄격하고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며 비일관적임
	진단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스펙트럼장애

< 표 2 > 연구대상 아동 B의 정보

대상	유아 B	
연령	만 3세	
성별	남아	
가족 관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적이고 느긋하며 자상함.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을 할 때도 있으나, 대개 허용적임. ■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인 편임.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동
발달 특징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월부터 걷기 시작함 ■ 시각 및 청각 예민함 ■ 평균적인 신체발달을 보이고 있음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얼이 양이 적었음 ■ 첫 단어 ‘엄마’, ‘맘마’를 12개월에 말하였음. ■ 34개월에 확실하게 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음. ■ 간단한 지시 따르기와 요구사항에 대해 언어표현 가능하나, 연령에 적절한 수준의 표현은 어려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월-22개월 어린이집 재원할 당시 적응기간 2주 동안은 문제 없었으나, 이후 등하원시 울음이 많았음 ■ 15-16개월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상호작용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음 ■ 23개월-현재 직장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적응기간 3주 가졌으며 잘 적응 하고 있음
	또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놀이함.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3개월 뒤 모 복직으로 영아기 주양육자는 외조모였음 ■ 돌 전후로 주양육자 외조모에서 모로 바뀌었음
	진단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스펙트럼장애

2. 연구 도구

가. MIM(부모-자녀 상호작용평가)

본 연구에서는 Marianne Marschak에 의해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참여 아동의 모-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맞게 실시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행동 관찰 및 분석과 O’Conner등(2003)이 개발하고 성영혜(2004)가 번안한 MIM 평정척도(Marschak Interaction Method Rating System)를 사용하였다. MIM 평정척도는 구

조, 도전, 개입, 양육 네 가지 차원에서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각 영역별 6~10문항으로 구분되어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내용은 < 표 3 >과 같다.

< 표 3 > MIM 평정척도 활동 내용(사전)

구분	번호	활동내용	구분
사전	1	어른과 아이는 각각 인형을 하나씩 가지세요. 두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세요.	개입
사후		부모와 아이는 소리나는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함께 놀이하세요.	개입
사전	2	어른은 아이에게 “네가 어린 아기였을 때…”로 시작하여 아이가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육
사후		두 개의 숨 공으로 주고받기 놀이를 하세요.	개입
사전	3	어른과 아이는 블록을 8조각씩 나누고 어른이 먼저 만든 후 아이에게 따라 해보라고 말하세요.	구조/도전
사후		성인이 블록으로 구조물을 쌓아 만든 다음 아동에게 “네가 가진 블록으로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보렴.”이라고 말해주세요.	구조/도전
사전	4	어른과 아이는 함께 노래를 부르세요.	개입
사후		어른은 아이를 남겨두고 1분 동안 방을 떠났다가 돌아오세요.	구조/양육
사전	5	어른은 아이를 남겨두고 1분 동안 방을 떠났다가 돌아오세요.	구조/양육
사후		어른과 아이는 로션을 서로에게 발라주세요.	양육
사전	6	어른과 아이는 로션을 서로에게 발라주세요.	양육
사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익숙한 놀이를 하세요.	개입
사전	7	췌췌췌를 하세요.	개입
사후		성인은 아동에게 노래를 불러 주세요.	양육
사전	8	어른과 아이는 서로 먹여주세요.	양육
사후		어른과 아이는 서로 먹여주세요.	양육

출처: 선우현. (2008). 모와의 상호작용 놀이가 자폐성 유아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5, 35 - 54.

나.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마다 아동의 모와 치료사가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를 통해 점수를 매겨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척도는 ‘관심 시작하기’, ‘관심 나누기’, ‘정서 공유하기’, ‘정서 조절하기’, ‘자발적 주도하기’로 크게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점, ‘조금 나타난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나타난다’ 4점, ‘항상 나타난다’ 5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3~5문항으로 구분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모-유아 상호작용놀이(선우현, 2008)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 회기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매회기에 1단계 감각발달 놀이, 2단계 정서발달 놀이, 부모참여 놀이를 포함하며 총 40분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 < 표 4 >와 같다.

< 표 4 >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프로그램 구성

단계	주제	상호작용 놀이내용	기대효과
사전평가	모-아동 상호작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면담 및 아동관찰 • MIM 과제 사전평가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동 간의 상호작용방식 파악
초기 1-3회기 관심 시작하기	감각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접촉 놀이 • 풍선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와 라포형성하기 • 치료실 환경에 안정감 느끼기
	정서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을 이용해 아동 놀이의 보조 맞추기, 아동의 놀이 따라하기 	
	부모참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동 서로 로션바르고 손 닦아주기, 풍선 함께 불기 	
중기 4-9회기	감각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접촉 놀이 • 풍선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심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카프 놀이 비눗방울 놀이 뗏목놀이 종이컵 쌓고 무너뜨리기 놀이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에 흥미 갖기
	정서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잇감을 이용해 아동의 놀이에 구체적 칭찬을 이용해 긍정적 반응해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 듣고 따르기
	부모참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컵 함께 쌓고 무너뜨리기 풍선 날리기 및 주고받기 놀이 비눗방울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고 받고 놀이하기
말기 10-12회기 정서 공유하기	감각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접촉놀이 색 테이프놀이 김밥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의 하기 모방하기
	정서발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잇감을 이용해서 아동의 놀이에 의미를 넣어주고 아동에게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부모참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팝튜브로 눈을 마주보며 상호작용하기 색테이프를 이용해 집 만들기 	
사후평가	모-아동 상호작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면담 및 아동관찰 *MIM 과제 사후평가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아동 간의 상호작용방식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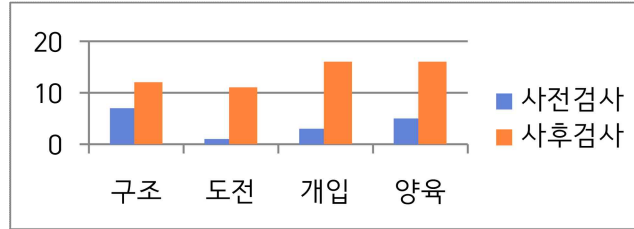
출처: 선우현. (2008). 모와의 상호작용 놀이가 자폐성 유아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5, 35 - 54.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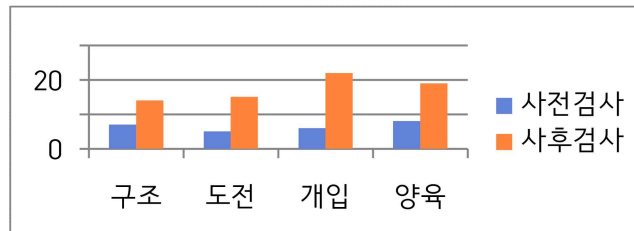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대상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통한 사례연구로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로 MIM, 매 회기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에 나타난 변화와 회기별 관찰변화에서 나타난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변화를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MIM 평정척도 사전·사후 변화

아동 A와 아동B의 사전·사후 사회 성숙도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1 > 아동A의 MIM 평정척도 사전·사후 변화



< 그림2 > 아동B의 MIM 평정척도 사전·사후 변화

MIM 평정척도에서 아동A는 구조,양육,개입,도전 순으로 13점,11점, 10점, 5점 증가하였고, 아동B는 개입, 양육, 도전, 구조 순으로 16점, 11점, 10점, 7점 증가하였다.

2. MIM 사전 사후 관찰을 통한 상호작용 변화 분석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전과 후에 MIM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의 변화를 관찰, 분석하였다. 모-아동A와 모-아동B의 구조, 도전, 개입, 양육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은 아래의 < 표 5 >, < 표 6 >으로 제시하였다.

< 표 5 > 아동 A의 MIM 분석

원리	사전	사후
구조	평가 전반에 걸쳐 아동의 모는 활동의 시작과 끝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조화하였으나, 어떤	모는 봉투를 아동이 열고 과제카드를 꺼내 글자를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과제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동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과제를 바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아동이 활동에 관심이 없고 다른 행동을 할 때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이 평소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고 질문 및 지시하여 아동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p>	<p>‘엄마한테 1번 봉투 쥐’ ‘우리 서로 먹여줄거야’ 등의 명백한 지시를 통해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이 콘센트를 만지려고 하자 ‘만지면 안돼’라고 명확하게 제한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아동과 함께 할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동이 놀이 도중 다른 활동이 하고 싶다고 하자 ‘이거 하고 놀 수 있어.’라고 말하며 적절한 제한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한다</p>
<p>도전</p>	<p>아동이 먼저 블록을 쌓자 모는 자신이 쌓은 블록을 쌓아야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모가 만든 자동차는 블록이 동글어 고정시키기 힘든 부분이 있어 아동이 따라 만들기 어렵지 않았다.</p>	<p>아동이 먼저 블록을 쌓자 모는 아동을 따라 쌓았으며, 아동의 블록이 넘어지자 ‘괜찮아’라고 바로 격려하며 아동이 계속해서 블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이 자신이 쌓고 싶은 것을 모두 쌓고 무너지게 하자 모가 ‘엄마가 하는거 00이도 해보자’라고 말하며 블록을 택해 쌓았으며 잘 서는 블록 두 개를 세우고 그 위에 겹쳐 쌓는 수준으로 쌓아 아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개입</p>	<p>모는 MIM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멋쟁이’, ‘빙글빙글’ 등의 언어와 몸동작을 함께 하며 아동의 주의집중을 이끌어내며 아동이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였다. 그러나 과제를 진행하면서 아동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아동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모는 아동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활동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이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 바라보았으나, 알아채지 못하고 먼저 봉투 속 안에 있는 것을 꺼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아동이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 모가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아동이 모의 의도대로 따라오면 바</p>	<p>아동이 동물인형 누르는 것에 과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모는 봉투에 넣은 채로 동물인형을 눌러 소리를 내었으며,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을 번갈아 눌러 ‘무슨 소리지?’ 라고 말해 퀴즈 놀이로 넘어가 아동의 답변에 맞춰 놀이 방향을 바꿔 아동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이 놀이를 하며 주의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특체 시간에 했었잖아’ 라고 말하며 아동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놀이를 진행하였다. 블록 쌓기에서는 아동이 모를 잘 따라하지 않자 색을 특정하여 쌓고 말하며 아동이 해당 블록을 쌓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과 노래를 부를 때는 아동이 익숙한 노래를 택해 율동과 노래를 불렀으며, 끝말은 아동이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에 참여할</p>

	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등 과한 개입 행동을 하였다.	수있도록 하였다.
양육	모는 활동 전반에 걸쳐 높은 톤과 다정한 말투를 보였으나, 아동의 말과 행동에 대한 미소, 신체접촉이 거의 없었다. 또한 모는 칭찬을 하지만, 깊은 정서를 나누는 칭찬이 아닌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말로 보여지며 아동을 대할 때 미소,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 신체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시와 목표지향적인 모습으로 아동이 따라오지 못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종종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싫어하지? / 어렵지? 등).	모는 아동의 행동에 ‘공 굴리기 잘 하잖아’, ‘던지기도 잘하잖아’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동 또한 모의 칭찬에 반응하며 모가 칭찬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동의 말에 하나하나 반응해주었다. 함께 먹여주기를 하며 마주보고 앉아 아동의 눈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였다.

< 표 6 > 아동 B의 MIM 분석

원리	사전	사후
구조	모는 검사를 진행하면서 아동이 봉투를 거내고 함께 열어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동이 과제카드를 먼저 꺼낼 수 있도록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모는 아동에게 제안하며 질문의 형태로 말을 건네었으나, 아동의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답을 하며 아동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동이 돌아다니자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까이 다가오게 한 후 ‘이제 여기 앉아’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활동을 시작 전 어떤 활동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준 후 시작하였다. 봉투를 열 때는 명확한 지시를 통해 아동이 봉투를 열어 어떤 과제인지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전	아동이 돼지인형을 무서워하자 바로 집어넣으며 ‘무서웠어. 재미없었어.’ 리고 말하며 바로 과제를 종결함으로써 아동이 돼지소리에 놀라 잠시 움츠러 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잘했다’ ‘다했다’등의 격려의 말을 해주었으며, 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개입	아동이 동물인형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동물인형 소리를 내기도 하고 상황극을 만들어 대화를 시도하며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 인형을 아동 얼굴 가까이대고 소리를 내어 아동이 무서워하며 거부하였다. 모는 아동이 관심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복해서 말하며 아동을 바라보지만, 아동과 대화가	아동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돌아가니자 모는 아동과 즐거웠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아동이 그에 반응하자 ‘하이파이브’라고 말하며 하이파이브를 하여 가까이 다가오게 하였음. 그 후 아동과 봉투의 겉 면을 함께 만지기도 하고 노래를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아동이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를할 때 아동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기다

	줄어들고 급하게 과제를 마무리한다.	려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양육	아동에게 칭찬하는 말은 있으나 의무적인 칭찬으로 보이며, 아동과 로션 바르기 활동을 할 때는 아동에게 ‘엄마 발라줘’라고 말하며 모가 로션을 발라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이 로션 바르기 외에는 거의 없었다. 간식 먹기에서도 서로 먹여주지 않고 아동 혼자서 스스로 간식을 섭취하였다.	아동이 과제 수행 도중 다른 활동으로 넘어갔으나, 아동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동이 웃음을 지으며 모를 바라보자 모도 아동과 마주보며 언어적, 비언어적 긍정적 신호를 보내 함께 즐거운 놀이로 이어졌다. 과제 수행하며 친밀한 스킨십과 미소, 눈맞춤 횟수가 자주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로션을 바르고 모의 코와 아동의 코를 대며 서로 친밀한 스킨십을 하였다.

3. 부모참여 상호작용발달놀이치료에 나타난 회기별 상호작용 변화

아동 A와 아동 B의 회기별 상호작용 변화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의 <표 7 >과 같다.

< 표 7 > 회기별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 변화

대상	단계	회기	치료사점수	모 점수
아동A	초기	1	25	51
		2	25	53
		3	33	55
아동B		1	56	70
		2	66	72
		3	65	73
아동A	중기	4	40	70
		5	36	69
		6	49	73
		7	41	76
		8	48	76
		9	46	79
아동B		4	73	77
		5	83	80
		6	76	80
	7	77	82	
	8	71	82	
	9	71	83	

아동A	말기	10	56	74
		11	56	89
		12	56	88
아동B		10	66	83
		11	83	87
		12	87	87

< 표 7 >와 같이 회기별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에서 아동 A와 아동 B 모두 점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참여 상호작용발달놀이치료에 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 변화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의 회기별 관찰변화에서 나타나는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아동 사례를 회기별로 관찰·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 < 표 8 > 과 같다.

< 표 8 >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변화 단계

단계	아동 A	아동 B
초기 (관심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실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워 보였고, 주로 돌아다니며 탐색하였다. • 치료사의 시선 맞추기 시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놀이 집중 시간이 짧고,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불 위에 앉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 비눗방울 놀이에서 ‘내가 할래요’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일부 전달하며, 치료사의 안내를 수긍하고 따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중기 (관심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의 행동 모방 및 놀이 주고받기를 시작하였다. • 정서발달놀이에서 치료사와 함께 놀이를 진행하며 시선 맞추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 부모참여놀이 단계에서 모와 상호작용 중 시선 맞추고 웃음이 증가하였으며,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접촉 놀이 요청과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증가하였다. • 로션놀이, 팜튜브 활동에서 치료사의 행동 모방 및 놀이 규칙 따르기 빈도 수가 증가하였다. • 부모참여놀이 단계에서 모와 놀이신호에 맞춰 행동하며 놀이를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말기 (정서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을 마주칠 때 눈을 가리는 모습이 사라지고 치료사와 눈을 바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와 놀이에서 링크, 악수 등 놀이 규칙 이해 및 수행이 가능해졌

	<p>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어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중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졌다. •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놀이 이어가기가 다소 수월해졌다. • 주고받기와 상호작용 능력이 증가하였다. • 부모참여놀이 단계에서 모와의 눈맞춤, 놀이 규칙 따르기, 놀이 요청 능력이 강화되었다.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와의 놀이에서 적극적 상호작용 및 흥미 표현이 증가하였다. •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요청 사항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 부모참여놀이 단계에서 모의 신호에 따라 놀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참여한 어머니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부모참여 상호작용발달놀이치료 사례 연구로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어머니가 함께 참여했을 때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가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참여한 아동 A와 아동 B 모두 MIM 평가 사전·사후를 분석한 결과, 사전 활동에 비교하여 아동 A와 아동 B 모두 과제수행에 보다 더 수월한 모습이 나타났다. 모의 발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모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눈맞춤 횟수가 증가하고 미소를 짓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 A의 모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인내하며, 적절한 제한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동 B의 모는 아동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 대화를 조율하며, 적절한 개입으로 아동과 함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 또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김기주, 2024), 음악 활동을 통해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와 질이 증가했으며, 놀이치료를 통해 아동의 눈맞춤 및 미소,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는(양혜영, 2023),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나타난 회기별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동 A와 아동 B의 매 회기 측정된 척도 점수가 상승한 것을 보아 아동 A와 아동 B 모두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A는 상호작용 시도에 반응하고 눈 맞춤이 증가하였으며, 아동 B도 눈맞춤이 증가하고 상호작용 놀이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참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용 및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이 중재 효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정필연, 연석정, 홍기현, 2023). 부모참여가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통해 질 높은 상호작용을 시도한 모와 치료사가 효능감을 느낀 것으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의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근진, 2010).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아동의 상호작용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동 A는 초기 단계에는 치료사의 시선을 마주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크게 외치며 치료사가 시도하는 놀이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단어 사용이 잦았으나 종결 단계에서는 시선을 마주치면 눈을 가리는 모습이 소거되고 함께 눈을 맞추고 웃는 빈도수가 늘어났다. 아동 B는 초기에서 시선이 치료사 너머에 있었고 이불에 앉는 것을 거부하였다. 치료가 진행되며 아동이 이불에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안정감을 획득하여 이불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놀이를 하며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종결 단계에서는 치료사의 표정과 몸짓을 모방하며 마주보고 웃기가 가능했다. 이는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통해 치료 초기에 눈맞춤과 놀이활동에 소극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동이 치료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눈맞춤 빈도 증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향상, 놀이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된(김미미 외 2인, 2023)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를 진행한 후 사후 MIM 관찰 분석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MIM 평정척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점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에 나타난 회기별 상호작용 척도 점수가 증가되어 긍정적인 점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참여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과정에서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적은 사례로 인해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따르므로 추후 다양한 연령과 발달 수준의 아동에게 적용한 사례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 상호작용 척도는 부모와 치료사의 보고 형식으로 상호작용은 측정하여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개념으로 상호작용 능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모-아동 뿐만 아니라 부-아동, 부모-아동 간의 치료 참여를 얻어 연구하는 것과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치료 종료 후에도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교육학회, 19(4), 93-110.
-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4, 109-136
- 김기주(2024).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에 대한 마음읽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부모 양육효능감 및 아동 사회·정서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치료학회, 33(1), 47-55.
- 김미미, 황미영, 선우현(2023). 자폐스펙트럼아동의 상호작용 발달놀이치료(IDP) 사례연구. 통합치료연구 14(2) : 29-45.
- 김유미(2012). 장애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김윤지(2024).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울분에 미치는 영향 –미래시간조망과 대처유연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차미(2012).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김경숙, 선우현(2022). 반응성 교수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영유아 자녀의 상호작용 행동 증진 연구. 인문사회 13(2), 1573-1588.
- 금혜진(2004). 발달장애 아동의 모-자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귀열(1998). 인간관계 촉진 프로그램 적용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인성특성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윤옥(200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 정서지능과의 관계.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현(2008). 모와의 상호작용 놀이가 자폐성 유아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5, 35-54.
- 성영혜(2004). 치료놀이를 통한 모-아 상호작용 증진 효과=MIM을 이용한 효과검증
- 이도영(2019). 응용행동분석 부모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의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현(2009). 자폐 범주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의 역할 및 과제. 유아특수교육연구, 9(1), 103-133.
- 양혜영(2023).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부모-아동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 주도 가정 기반 음악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0(2), 89-113.
- 윤상원(2024). 누구를 위해 ‘응용행동분석’은 존재하는가 : 발달장애아 명명된 학생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 : ABA vs. CHAT. 교육공동체벗, 2024-07 (81): 162-171
- 박미정, 이원령(2024). 부모-아동 상호작용훈련이 중도·중복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효과. 아동 부모학회지: 10(2), 31-54
- 조근진(2010).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2024). 플로어타임에 참여한 어머니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정서적 상호작용 경험연구.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필연, 연석정, 홍기형(2023).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8(1), 1-15
- 최윤희(2006). 반응적 의사소통 전략의 적용을 위한 어머니교육이 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영, 양윤란, 김재환(2004).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16.
-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26.6 (2005): 351-365.
- 홍정애, 선우현(2018). IDP 상호작용발달놀이치료, ASD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실제. IDP연구소. 용인
- 황보연희(1999). 장애유아 및 일반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행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son, G. Tupa, M.(2000). Early Development of Stereotyped and Self-Injurious Behavior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3(1), 1-19.
- Calhoun, M. L., Rose, T. L. & Prendergast, D. E.(1991). *Charlotte circle interventionguide for parent-child interactions*. Tuscon, Arizona: Communication Skill Builders.
- Mahoney, G.(1999). *Family/Child Curriculum: A Relationship Focused Approach to Parent Education/Early Intervention* Tallmadge. OH: Family Child Learning Center.
- Grant, R. J.(2021). *자폐스펙트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발달놀이치료 제 1판(진미경 외 5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17).
- KODDI.(2024). 2024 장애통계연보. Retrieved from KODDI
- O'Connor, K., Ammen, S., Hitchcock, D., & Backman, T.(2004). The MIM rating system administration and scoring manual. *First International Therapy Conference*(pp. 6-30). Chicago. IL.
- Winnicott, D. W.(1963). *Communication and Not Communication leading to a Study of Certain Opposites*. Lond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Abstract>

**A Case Study of Parent Cooperati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abilities**

Park, So-yeon · Sunwoo, Hyun
Park Kyung-ho Language Psychotherapy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change in children's interactive ability through parental participation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consisting of the first stage sensory developmental play, the second stage emotional developmental play, and parental participatory play, in which parents participate in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subjects, a three-year-old boy diagnose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on the CARS test and a mother, who had no experience in parental participatory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Parental participation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40 minutes over a total of 12 sess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interactive changes in children of the parent and the therapist in each session, an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interaction scale was prepared and analyzed, and parent-child interaction evaluation (MIM)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each session. In addition, the treatment process up to 12 sessions was analyzed to find out the interaction change between the therapist and the child in the session.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parent-child interaction evaluation (MIM) rating scale test conducted by the parent-child interaction evaluation (MIM) before and after the parent-child interaction evaluation (MIM) of parental participati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lay therapy, the scores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study increased in all areas of structure, challenge, intervention, and parenting. Second, the score increas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interaction scale performed each time while conducting parental participati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lay therapy, and the test result showed a positive score chang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ild's interaction change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arental participati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lay therapy, positive changes were observ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hild's interaction in the process of each treatment session.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sensory developmental play, emotional developmental play, and parental participatory pla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children's interaction ability in parental participatory interaction developmental play therapy.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 Interactive Developmental Play Therapy, Parental Cooperation, A case study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백슬기* · 홍혜영**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PBI), 우울(CES-D), 한국형 자아분화, 삶의 의미(MLQ)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상관관계 등 기술 분석 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의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 분화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과도 정적상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과보호의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 분화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과도 부적상관,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돌봄의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는 부분 매개효과를, 과보호의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모든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의미발견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모든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삼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돌봄의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돌봄의 부모 양육 태도를 지각할수록 자아 분화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삶의 의미를 높여 우울을 낮추며, 과보호의 부모 양육 태도를 지각할수록 자아 분화가 낮아지고 이는 다시 삶의 의미를 낮춰 우울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우울을 이해할 때, 부모 양육 경험에 대한 지각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상담 장면에서는 자아 분화를 증진하고 개인의 삶 속 의미를 재구성 및 발견하도록 돕는 개입이 우울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부모 양육 태도, 우울, 자아 분화, 삶의 의미

* 본 연구는 백슬기(2020)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5년 1월 14일 ■ 최종 수정일 : 2025년 2월 17일 ■ 게재 확정일 : 2025년 2월 1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중심의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경제적 자립, 대인관계 형성과 같은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환경에 놓인다. 이러한 급격한 생활 변화는 진로 불안, 관계 갈등,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정주리 외, 2015).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43.2%가 우울감을 호소하며(오혜영, 2018), 이는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김광진, 정남운, 2019). 대학생 우울은 학업 성취 저하, 대인관계 갈등, 자살 사고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므로(탁은영, 박주희, 2019), 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규명이 필요하다.

우울(depression)은 일상에서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상태로, 사고·태도·지각·대인관계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강보미, 2015). DSM-5(APA, 2015)는 우울한 기분, 흥미 상실, 식욕·수면·체중 변화, 에너지 저하, 죄책감, 자살 사고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우울장애로 진단한다. 특히 20대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며, 그 원인의 상당수가 주요우울장애와 연관되어 있다(통계청, 2015; 보건복지부, 2016). 대학생 우울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은 심리적·사회적·가족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이 중 가족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보고된다(박영준, 2018).

부모 양육 태도는 주 양육자가 자녀 양육 시 보이는 행동과 태도의 경향성으로, 자녀의 정서·인지 발달과 심리적 건강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Schaefer, 1959). Parker 등(1979)은 이를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돌봄은 따뜻함과 정서적 반응성을, 과보호는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과보호적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지각할 경우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고, 이는 우울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김은정, 2014; 김창숙, 2012; 김지영, 김상호, 2013). 그러나 과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어(최주영, 진미경, 2019),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요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는 개념이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Bowen(1976, 1985)의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자아 분화는 가족이나 가까운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 속에서 독립성과 정서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 내적 차원의 분화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여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대인관계 차원의 분화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과 경계를 지키는 능력을 뜻한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낮은 사람은 타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 위험이 높다(심순구, 홍정순, 2018; 신소림, 2014). 부모의 돌봄은 자아 분화를 촉진하지만, 과보호는 이를 저해하며 정서적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권소희, 이재림, 2014). 자아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서적 불균형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나타나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지민, 2010). 또한, 자아 분화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 진로 결정, 대인관계 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아 분화는 자신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무력감, 우울, 부정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김상옥, 전영자, 2013; 이지선, 정혜정, 2016; 하상희, 2015; 조혜정, 이윤주, 2014). 자아 분화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의 정서적 안정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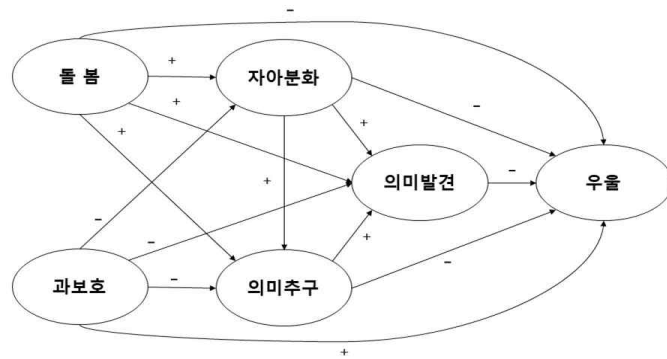
대학생 시기는 또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를 형성하고 확립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이다(정미영, 2013). Frankl(1959)은 인간의 주요 동기를 ‘의미를 향한 의지’로 규정하였으며,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와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으로 구분하였다. 의미발견은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우울을 완화하는 데 일관된 효과를 보였으나, 의미추구는 긍정적·부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었다(Brassai et al., 2015; Boyraz et al., 2013). 문화적 맥락에 따라 두 요인의 관계는 달라진다. 서양에서는 독립성과 차별성, 고유성을 선호해 의미발견이 개인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험과 연결되는 반면 의미추구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여 부정적 심리상태와 관련되지만, 동양에서는 의미추구가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해석된다(김상희, 박성현, 2017). 또한 채선화와 김진숙(2020)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다 보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삶의 의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

학생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미추구가 어떻게 의미발견으로 전이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삶의 의미는 대인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부모 양육 태도는 자녀의 삶의 의미 형성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Yu, Chang, 2018; 오윤선, 최아람, 2019). 부모의 돌봄은 삶의 의미 인식을 높이는 반면, 과보호는 그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정숙희,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삶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돌봄은 자기탐색을 촉진해 의미 형성을 돕는 반면, 과보호는 부정적 자기지각과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여 이를 방해한다(남태현, 이희경, 2016; 박지영, 정예슬, 2019). 또한 높은 삶의 의미는 개인의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긍정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며(원두리 외, 2005; Steger et al., 2006), 반대로 낮은 삶의 의미는 우울, 공허감, 스트레스, 충동적 행동 등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었다(Martela, Steger, 2016).

자아 분화는 삶의 의미 형성에 필요한 정서적, 인지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분화 수준이 높은 개인은 외부 스트레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재구성할 수 있으나(김경희, 이희경, 2011), 낮은 개인은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영향받아 삶의 방향 설정이 어렵고, 의미 형성이 저해될 수 있다(김형진, 2013). 김정애(2008)는 높은 자아 분화 수준을 가진 사람은 독립된 존재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하면서도 확고한 정체감을 가지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 분화는 개인이 관계 속에서 자율성 회복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기반으로(윤성민, 2016; Mehri, Y., Salari, S. M., Langroudi, M. S., & Baharamizadeh, H., 2011), 의미 구성 능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공백은 대학생의 우울 이해와 개입 전략 마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본 연구는 자아 분화, 삶의 의미,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모형은 부모 양육 태도가 자아 분화, 의미추구, 의미발견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림 1과 같다. 이를 통해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안녕을 위한 삶의 의미 형성의 핵심 기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층 이해와 더불어,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 태도, 우울, 자아 분화, 의미 추구, 의미발견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 양육 태도(돌봄,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는 매개할 것이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돌봄,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매개할 것이다. 넷째, 부모 양육 태도(돌봄,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삼중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설문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92부와 온라인 설문 180부로 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부적합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학생이 143명(56.7%), 남학생이 109명(43.3%), 학년은 1학년이 17명(6.7%), 2학년이 92명(36.5%), 3학년이 91명(36.1%), 4학년이 52명(20.6%)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부모 양육 태도 척도(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송지영(1992)이 타당화한 돌봄과 과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25문항이다. 돌봄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과보호 문항의 예로는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등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오옥진, 이은희 등(1999)의 연구에서 돌봄과 과보호 각각 .8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돌봄은 .91, 과보호는 .88이다.

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한국판 우울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20문항의 Likert의 4점 척도이다. 우울 정서, 긍정 정서, 대인관계, 신체적 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로는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전검구 등 (2001)의 연구에서 .91이고, 본 연구에서는 .93이다.

다. 한국형 자아 분화 척도(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 분화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Likert의 5점 척도이다. 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예로는 ‘내 의견이 주위 사람과 비슷해야 안심이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등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정혜정, 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89로, 본 연구에서는 .88이다.

라.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두리, 김교현 및 권선중(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각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의 Likert 7점 척도이다. 의미추구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의미발견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원두리, 김교현 및 권선중(2005)의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8,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86이며, 하위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의미추구 .82, 의미발견 .80이다.

3. 자료 분석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한 후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각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를 선출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팬텀 변인을 이용하여 간접경로들에 대한 삼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돌봄과 과보호는 유의미한 부적상관($r=-.578, p<.001$)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돌봄은 종속변인인 우울($r=-.645,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자아 분화($r=.481, p<.001$), 삶의 의미($r=.430,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 하위변인인 의미추구($r=.358, p<.001$)와 의미발견($r=.395,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과보호는 종속변인인 우울($r=.49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자아 분화($r=-.441, p<.001$), 삶의 의미($r=-.345,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 하위변인인 의미추구($r=-.287, p<.001$)와 의미발견($r=-.315,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인인 우울은 자아 분화($r=-.581, p<.001$), 삶의 의미($r=-.516,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의 하위변인인 의미추구($r=-.425, p<.001$)와 의미

발견($r=-.485$,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매개변인인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83$, $p<.001$)을 나타내었고 삶의 의미의 하위변인인 의미추구($r=.306$, $p<.001$)와 의미발견($r=.367$,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 하위변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r=.588$, $p<.001$)을 나타내었다.

<표 1>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와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2	3	4	5	5-1	5-2
1. 돌봄	1						
2. 과보호	-.578***	1					
3. 우울	-.645***	.491***	1				
4. 자아 분화	.481***	-.441***	-.581***	1			
5. 삶의 의미	.430***	-.345***	-.516***	.383***	1		
5-1. 의미추구	.358***	-.287***	-.425***	.306***	.875***	1	
5-2. 의미발견	.395***	-.315***	-.485***	.367***	.903***	.588***	1
평균(M)	2.914	2.141	1.946	2.581	5.073	5.208	4.938
표준편차(SD)	.410	.405	.563	.523	.731	.778	.867
왜도	-.057	-.371	.481	.352	-.291	-.063	-.268
첨도	-.348	-.221	-.781	.404	.708	.390	.090

N=252, *** $p<.001$

2. 매개효과 검증

가.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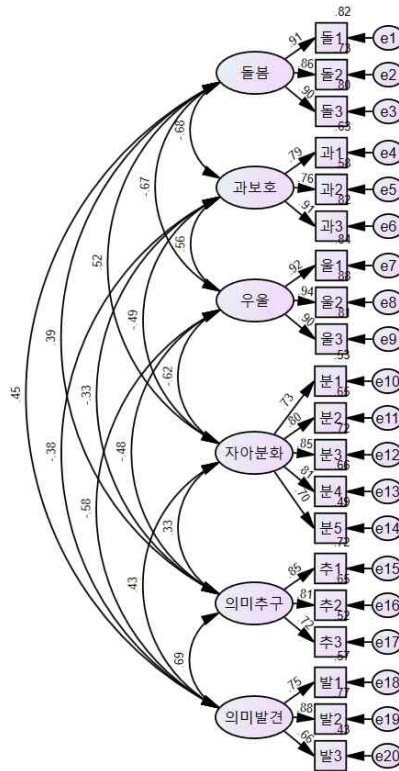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하위변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155, N=284)=406.224$, $p<.001$; CFI=.930; TLI=.914; RMSEA=.080(.071~.090)로 나타났으며,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치로 20개의 측정 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p	df	CFI	TLI	RMSEA	90%	
						low	high
406.224	.000	155	.930	.914	.080	.071	.090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와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를 통해서 가는 매개모형, 그리고 부모 양육 태도가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와 우울로 가는 이중 매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

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p	df	CFI	TLI	RMSEA	90%	
						low	high
406.224	.000	155	.930	.914	.080	.071	.090

부모 양육 태도, 우울, 자아 분화, 삶의 의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경로검증 결과를 아래에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비표준화 계수(B)와 t값(C.R.)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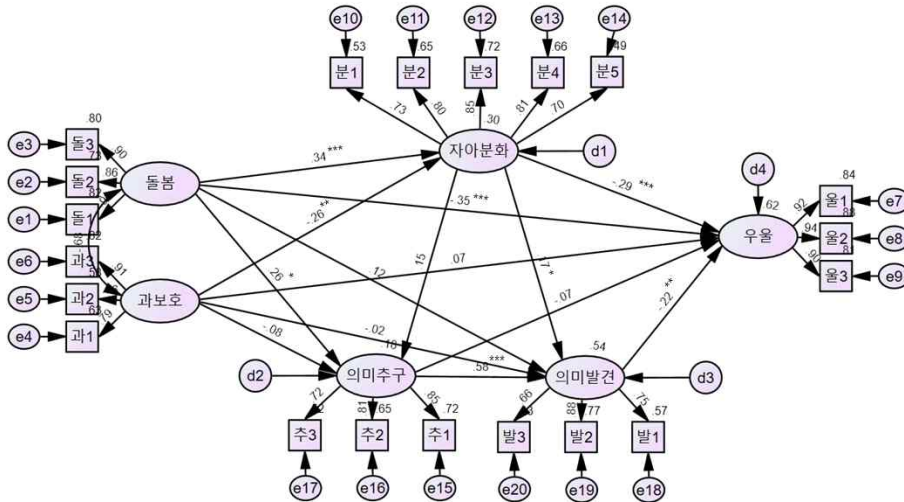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돌봄 → 자아분화	0.395	0.338	0.106	3.728***
과보호 → 자아분화	-0.324	-0.260	0.114	-2.830**
돌봄 → 의미추구	0.441	0.262	0.175	2.524*
과보호 → 의미추구	-0.141	-0.078	0.184	-0.764
자아분화 → 의미추구	0.221	0.153	0.121	1.828
돌봄 → 의미발견	0.184	0.121	0.135	1.366
과보호 → 의미발견	-0.038	-0.023	0.140	-0.270
자아분화 → 의미발견	0.218	0.167	0.094	2.327*
의미추구 → 의미발견	0.530	0.585	0.079	6.745***
돌봄 → 우울	-0.473	-0.350	0.099	-4.755***
과보호 → 우울	0.099	0.068	0.101	0.973
자아분화 → 우울	-0.336	-0.290	0.070	-4.786***
의미추구 → 우울	-0.060	-0.074	0.060	-0.988
의미발견 → 우울	-0.193	-0.218	0.072	-2.662**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돌봄은 우울에 $-.35(p < .001)$ 으로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나타냈고, 자아 분화에 $.338(p < .001)$, 의미추구에 $.262(p < .01)$ 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나타냈다. 과보

호는 자아 분화에 $-.26(p<.01)$ 로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 분화는 의미발견에 $.167(p<.05)$ 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보였고 우울에 $-.29(p<.001)$ 로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보였다.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에 $.585(p<.001)$ 로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의미발견은 우울에 $-.218(p<.01)$ 로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보였다.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05$ ** $p<.01$ *** $p<.001$

<그림 3> 연구모형 경로검증 결과

다. 매개효과 검증

(1) 전체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하였다.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통해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돌봄은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였다. 한편 과보호는 자아 분화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과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와 돌봄, 과보호가 자아 분화를 매개하여 의미추구로 가는 간접경로와 돌봄이 자아 분화를 매개하여 의미추구, 의미발견으로 가는 간접경로와 자아 분화가 의미추구,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와 의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에서 매개 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다. 돌봄과 우울의 관계를 자아 분화가 부분 매개하였고,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를 자아 분화가 완전 매개하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돌봄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또한, 돌봄과 우울,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를 자아 분화와 의미발견이 이중 매개하였고,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삼중 매개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low ~ upper)		
돌봄	→ 자아분화	의미추구	.262*	.052* (.002 ~ .145)	.314**
돌봄	→ 의미추구	의미발견	.121	.240** (.113 ~ .399)	.361**
과보호	→ 자아분화	의미추구	-.078	-.040* (-.111 ~ -.001)	-.118
과보호	→ 의미추구	의미발견	-.023	-.112 (-.261 ~ .028)	-.136
자아분화	→ 의미추구	의미발견	.167	.089 (-.002 ~ .202)	.256**
자아분화	→ 의미발견	우울	-.290**	-.067** (-.133 ~ -.021)	-.357**
돌봄	→ 의미추구 의미발견	우울	-.350**	-.200** (-.317 ~ -.106)	-.550**
과보호	→ 의미추구 의미발견	우울	.068	.114* (.019 ~ .223)	.182
의미추구	→ 의미발견	우울	-.074	-.127* (-.261 ~ -.022)	-.202**

*p<.05 **p<.01 ***p<.001

(2) 삼중 매개효과 검증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 분화 그리고 의미추구 또는 의미발견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삼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 변수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으로 부모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별 매개효과와 삼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팬텀 변수를 이용한 개별매개 효과와 삼중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LCI ~ ULCI)
돌봄 → 자아분화 → 우울	-.133***	.047	-.248 ~ -.057
돌봄 → 자아분화 → 의미발견 → 우울	-.017*	.012	-.058 ~ -.002
돌봄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우울	-.045*	.030	-.132 ~ -.005
돌봄 → 자아분화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우울	-.009*	.008	-.040 ~ -.001
과보호 → 자아분화 → 우울	.109**	.052	.030 ~ .244
과보호 → 자아분화 → 의미발견 → 우울	.014*	.011	.001 ~ .049
과보호 → 자아분화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우울	.007*	.006	.001 ~ .032

*p<.05 **p<.01 ***p<.001

결과를 살펴보면, 돌봄이 자아 분화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가 $-.133(-.248 \sim -.057)$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 분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돌봄이 자아 분화와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가 $-.017(-.058 \sim -.002)$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돌봄이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009(-.040 \sim -.001)$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삼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돌봄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045(-.132 \sim -.005)$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과보호는 자아 분화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가 $.109(.030 \sim .244)$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 분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과보호가 자아 분화와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014(.001 \sim .049)$ 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과보호가 자아 분화와

의미추구, 의미발견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는 $-.007(.001 \sim .032)$ 로 95% 신뢰구간의 0을 포함하지 않아 삼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인 부모 양육 태도(돌봄과 과보호), 자아 분화,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은 자아 분화, 의미추구, 의미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과보호는 자아 분화, 의미추구, 의미발견과 부적 상관,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 분화는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과 정적 상관,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또한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삶의 의미가 우울 완화에 기여함이 시사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지연, 오경자, 2011; Hooper & Doehler, 2011; Wong, 2014). 요약하면, 부모 양육 태도를 돌봄으로 지각할수록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는 높고, 우울의 수준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 양육 태도를 과보호로 지각할수록 자아 분화와 삶의 의미는 낮고, 우울 수준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돌봄은 자아 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을 낮추며,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과보호는 자아 분화를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돌봄적 양육이 직접적으로도 우울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며, 동시에 자아 분화를 통해 간접적 경로로도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과보호는 자아 분화를 저해하는 방식으로만 우울을 유발하는 경로가 확인되어, 정서적 억압과 통제가 장기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독립성과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arra et al., 2019; 김형진, 2013). 자아 분화는 흔히 인지적, 정서적 독립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명확히 구분 짓는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개인이 외부 평가, 갈등,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이지선, 정혜정, 2016).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심리적 거리를 건강하게 조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조혜정, 이윤주, 2014). 따라서 자아 분화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자율성 발달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로 자아 분화 수준은 학업, 대인관계, 진로 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리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돌봄으로 지각할 때 이러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과보호로 지각할 때는 이 수행을 방해하여 미성숙과 의존성을 강화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돌봄과 우울 간의 직접적 경로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돌봄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우울의 이중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미추구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의미발견을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반면 의미발견은 우울을 유의하게 직접 감소시켰다. 이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이 우울 경감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추구는 ‘과정’, 의미발견은 ‘결과’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경미 외, 2011; Wilt et al., 2018). 즉, 의미추구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과정적’ 단계이며, 의미발견은 그러한 탐색의 결과로 얻어진 실존적 통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Frankl(1963)의 의미치료 이론(logotherapy)에서도 강조되어 왔듯이,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심리적 회복과 정신적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의미추구 자체는 단기적으로 혼란이나 정서적 불편감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울의 완화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의미추구와 발견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단순히 ‘긍정적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내면적 노력이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돌봄은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유영달, 이은지, 2010). 정서적 지지와 수용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내면과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감내할 수 있다(조수아, 장진이, 2019). 이는 의미추구의 과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불안과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여, 탐색을 포기하지 않고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의미발견이 우울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은, 삶에 대한 해석의 완성이 정서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지닌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의미탐색의 안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단순한 탐색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탐색 결과를 통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부모 양육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 의미추구, 의미발견의 삼중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복합적 간접경로가 확인되었다. 자아 분화 → 의미발견의 이중 매개경로에서는 돌봄이 자아 분화를 높이고, 이는 의미발견으로 이어져 우울을 낮추는 경로가 나타났으며, 과보호는 이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자아 분화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우울의 삼중 매개경로에서는 자기 정체성과 감정적 안정이 의미 있는 삶의 탐색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우울을 경감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었다(Steger et al., 2008; 채선화, 김진숙, 2020). 결과적으로 돌봄은 자아 분화를 촉진시키고(김은정, 이혜란, 2017), 이는 의미추구 및 발견이라는 실존적 노력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경감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선영, 권석만, 2014).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 분화 수준을 결정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독립적 사고와 감정 조절 능력을 제한 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이 삶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탐색, 발견하는 기회를 축소시킨다. 이는 우울을 완화하는 장기적 심리 발달 경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일련의 심리적 성숙 경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담 현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개입 포인트를 제공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자아 분화를 높이기 위한 중재는 단기적으로는 정체성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의미 기반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내담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초기 발달과업과 심리·사회적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은 삶의 의미 형성과 연결되며, 이는 고립감 감소 및 우울 완화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밝혔다. 의미추구는 직접적인 정서 효과는 없지만, 의미발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다. 의미발견은 우울 감소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미추구의 심리적 기능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그 효과가 불분명했던 의미추구는 본 연구에서 자기성장과 의미발견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의 변수로 드러났으며, 상담과 심리교육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 양육 태도, 자아 분화, 삶의 의미,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

으며,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돌봄적 부모 태도가 삶의 의미 형성과 자아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통찰과 실천적 전략형성에 기여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에서의 다음과 같은 개입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내담자의 자아 분화를 높이는 개입은 정체감 강화를 통해 우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자아 분화는 상담 장면에서 쉽게 조절 가능한 변인은 아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표현을 돕는 훈련은 정체성과 자율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내담자가 자아 분화를 높일 수 있도록, 상담자는 내담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감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이는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통찰의 균형을 추구하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 치료적 접근이나 자기-체계 모델(self-system model)을 활용한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지적인 상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한 상태에서 무의미함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치유 경로가 될 수 있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밀접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삶에서의 고통이나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매우 치유적일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인지적 통찰에서 멈추지 않고, 발견된 의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도울 때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령별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만을 다루었으며, 부모의 실제 양육 행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 자아 분화의 하위 요인별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 다섯째, 삶의 의미 구성은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므로 문화적 가치관 등 맥락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는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 다양한 문화적, 개인적 맥락에서 실천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미(2015). 기독교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연구. 숭실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소희, 이계림(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41-61.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경희, 이희경(2011). 긍정정서와 자기결정성 요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4), 1353-1370.
- 김광진, 정남운(2019).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249-271.
- 김상욱, 전영자(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39-558.
- 김상희, 박성현(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 대, 20 대, 40 대 간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 김승권(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65(0), 5-18.
- 김은정(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201, 17(3), 83-129.
- 김정애(2008).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의미요법의 적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3), 846-851.
- 김지연, 오경자(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지영, 김상호(2013). 아동기 방임경험이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산업학회지, 38(4), 383-403.
- 김지인, 오제은(2014).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2), 59-91.
- 김진영, 박승민(2012). 기독교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115-140.
- 김정택, 심혜숙(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가족과 가족치료, 1(1): 31-45
- 김창숙(201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김형진(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우울증상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남태현, 이희경(2016).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관계성을 통한 진정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3), 45-64.

- 박선영, 권석만(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 박선영, 권석만(2012).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2), 199-224.
- 박선영(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준(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211-234.
- 박지영, 정예슬(2019). 삶의 의미 추구하고 학업만족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59-187.
- 신소림(2014).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심순구, 홍정순(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63-182.
- 오윤선, 최아람(2019). 기독교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7(1), 207-246.
- 오혜영(2018). 대학생의 불안, 이대로 괜찮은가?-대학(원) 생의 정신건강 위기지원방안. 국회교육희망포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1-24.
- 유태정, 김석선(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4(2), 127-135.
- 윤성민(2016). 자아분화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7(1), 107-123.
- 이서정(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5-30.
- 이지민(2010). 가족상담 :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선, 정혜정(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99-121.
- 정미영(2013). 삶의 의미의 두 요인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기능과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153-180.
-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2015). 대학생할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실수염려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우울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25-349.
- 장휘숙(2013). 전생애 발달심리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111-111.
- 정숙희(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탄력성과 삶의 의미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23-40.
- 조혜정, 이윤주(2014).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345-2360.
- 채선화, 김진숙(2020). 삶의 의미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39-468.

- 최주영, 진미경(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4(1), 19-35.
- 탁은영, 박주희(2019).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9(2), 107-124.
- 하상희(2015). 부모애착이 자기분화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진로미결정, 이성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189-209.
- 한기백(2014). 아동기의 부모 과보호와 대학생 우울의 관계: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427-448.
- 홍원표(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Arnett, J. J., & Ukauskienė, R., & Sugimura, K.(2014). The new life stage of emerging adulthood at ages 18–29 year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The Lancet Psychiatry*, 1(7), 569-576.
- Brassai, L., Piko, B. F., & Steger, M. F.(2015). A reason to stay healthy: The role of meaning in life in relation to physical activity and healthy eat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5), 473-482.
- Boyraz, G., Lightsey Jr, O. R., & Can, A.(2013). The Turkish vers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Turkish and American adult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4), 423-431.
- Choi, S. W., & Murdock, N. L.(2017).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nger express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9(1), 21-30.
- Cohen, K., & Cairns, D.(2012).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e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13-331.
- Hooper, L. M., & Doehler, K.(2011).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body mass index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n American college sample.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4(1), 71-82.
- Garrison, Y. L., & Lee, K. H.(2017). Meaning in lif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emotionality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2, 26-30.
- Goodman, M. L., Gibson, D. C., Keiser, P. H., Gitari, S., & Raimor-Goodman, L.(2019). Family, Belonging and Meaning in Life Among Semi-rural Kenya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5), 1627-1645.
- Lambert, N. M., Stillman, T. F., Hicks, J. A., Kamble, S., Baumeister, R. F., & Fincham, F. D.(2013). To belong is to matter: Sense of belonging enhances meaning in lif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1), 1418-1427.
- Martela, F., & Steger, M. F.(2016). The three meanings of meaning in life: Distinguishing coherence, purpose, and significa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5), 531-545.
- Ono, Y., Takaesu, Y., Nakai, Y., Ichiki, M., Masuya, J., Kusumi, I., & Inoue, T.(2017). The influence of

-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neuroticism and adult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ve symptoms in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7, 66-72.
- Park, J., & Baumeister, R. F.(2017). Meaning in life and adjustment to daily stressor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4), 333-341.
- Parra Jiménez, Á., Sánchez Queija, M. I., García Mendoza, M. D. C., Coimbra, S., Oliveira, J. E., & Díez López, M.(2019).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adjustment during emerging adulthood: a cross-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 (15), 1-15.
- Schnell, T., Gerstner, R., & Krampe, H.(2018). Crisis of meaning predicts suicidality in youth independently of depression. *Crisis*.
- Schnetzer, L. W., Schulenberg, S. E., & Buchanan, E. M.(2013). Differential associations among alcohol use, depression and perceived life meaning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ubstance use*, 18(4), 311-319.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Stepney, C. T., Sanchez, D. T., & Handy, P. E.(2015). Perceptions of parents' ethnic identities and the personal ethnic-identity and racial attitudes of biracial adul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1(1), 65.
- Trevisan, D. A., Bass, E., Powell, K., & Eckerd, L. M.(2017). Meaning in life in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college counselor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0(1), 37-51.
- Wilt, J. A., Stauner, N., Lindberg, M. J., Grubbs, J. B., Exline, J. J., & Pargament, K. I.(2018). Struggle with ultimate meaning: Nuanced associations with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3), 240-251.
- Wong, P. T.(2014). Viktor Frankl's meaning-seeking model and positive psychology. In *Meaning in positive and existential psychology* (pp. 149-184). Springer, New York, NY.
- Yu, E. A., & Chang, E. C.(2018). Parent-Child Closeness and Parents' Meaning in Life in Personal Meaning in Life: Examining Ethnic Differences. *The Family Journal*, 26(3), 300-305.
- Mehri, Y., Salari, S. M., Langroudi, M. S., & Baharamizadeh, H.(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spects of ident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733-737.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eaning in life -**

Back, Seul-gi · Hong, Hye-young
Yongin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sychological pathways in which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in childhood predict adulthood depression through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eaning in life. A total of 252 college students, whose biological parents are in marri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four scales to measure parental bonding, differentiation of self,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lack of care predicted depression through low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eaning in life, while parental overprotection predicted low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epression through meaning in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show more low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eaning in life which in turn lead to depression. Besides, those who experienced overprotective control that limits a sens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show more dysfunctional beliefs, which in turn predicts low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Clin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with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college students, care, overprotection, depression, differentiation of self, meaning in life, searching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관계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

양성순* · 홍혜영**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 40세~60세 성인 37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고 SPSS 21.0 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간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부적 부분 매개효과와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거쳐서 노화불안을 낮추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죽음불안에서 노화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남녀 집단 모두,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거쳐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여자집단에서는 생성감의 개별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와 그 과정에서 남녀 성차를 밝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중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

주제어: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노화불안, 생성감, 죽음불안

* 본 연구는 양성순(2020)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5년 1월 28일 ■ 최종 수정일 : 2025년 2월 22일 ■ 게재 확정일 : 2025년 2월 23일

I. 서론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년으로 여자는 86.4년, 남자는 80.6년이다(통계청, 2024).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살게 된다. 또한 2024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행정안전부, 2024). 나이가 들수록 여러 기능의 상실과 감퇴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장휘숙, 2007). 이런 연유로 건강한 노년을 지내기 위해 성공적인 노화, 노후 준비,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노년기를 대비하는 중년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윤선희, 2016; 주양숙, 2014). 중년의 정신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중년기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송은미, 2012).

학자에 따라 중년기 구분 기준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Levinson(1978)은 40세~60세를 중년기로 보고, 각 시기에 고유한 특징과 발달 과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Erikson(1956)도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모델에서 중년기를 40세~60세로 간주하였고 생성감 획득을 주요한 발달 과제로 보았다. 중년기는 활발한 경제활동에서 은퇴로 전환되는 시기로,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애순, 2015; 최윤영, 이현우, 2025). 특히, 우리나라 중년층은 고령 인구 증가와 자녀 독립 지연으로 인해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이주희, 이선희, 2017).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세~60세로 한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Erikson, 1956; Levinson, 1978; 김은미 2005; 조진희, 2013; 오혜령, 유나현, 2023; 최은영, 한지영, 유순화, 2025)와 우리나라 법정 정년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중년기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질환, 죽음을 보게 되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늙음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각하는 중년기 성인들은 노화를 지연시키려 노력하게 되고 이는 노인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보이게 한다(김화선, 최은정, 양정남, 2009). 중년기는 노화에 대한 불안의 절정기로, 중년기 성인은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신학진(2012)에 의하면 노화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거부감은 노인 차별로까지 이어지며 과거와 달리 훗

씬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강해자, 2012). 따라서 중년기 이후 삶의 질 향상(김순이, 2005)과 성공적 노후 적응을 위한 중요한 변인인(신순옥, 2013) 노화불안의 완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노화불안은 노화와 불안의 합성어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Klemmack와 Roff(1984)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화불안은 노화와 관련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로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걱정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노화불안은 중년기 성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Kurger, 1994). 성별에 따른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더 노화불안이 높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여성의 노화불안이 높다는 연구를 검토해 보면, 여성이 외모에 가치 비중을 남성보다 더 많이 두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순이, 2005). 특히, 연령차별주의(ageism), 성차별주의(sexism)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노화에 대해 더 불안감을 느낀다(신경일, 2015). 오은아(2020)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화불안이 높다고 나왔으며 경제력 상실, 신체 매력 상실, 신체 건강 상실 요인에서 중년 여성의 노화불안이 중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지연(2018)의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화불안 비교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화불안의 유발 요인과 완충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남녀 집단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삶의 의미를 살펴보면, Frankl(1959)은 아주 힘든 고통 속에서도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근원적인 동기라고 하였으며 박선영(2013)은 삶의 의미가 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년기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전환기이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추구는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변인이다(황춘화, 2003).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도선, 2017; 최정아, 전혜성, 2020; 전성민, 박정윤, 2024).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두 변인과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인 생성감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생기는 죽음불안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적 가치가 있다.

생성감은 중년기 자아 발달 정도로서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길 바라는 욕구, 자신은 죽어도 계속 남아 있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나타난다(오경석, 2002). 삶의 의미와 생성감 사이의 관

계를 살핀 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생성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Stockman, 2008), Kotre(1999)는 인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침체하지 않고 생성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Erikson(1968)의 발달이론에서도 중년기의 성취 과업으로 생성감을 강조했는데, 생성감 획득은 다음 단계인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생성감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친사회적 모습을 보이며 심리적 안녕감도 향상된다(Peterson & Klohnen, 1995). 장혜경(2021)의 연구에서도 생성감은 중년기 성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획득된 생성감 정도는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노화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성감은 중년기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여정숙, 김병석, 최희철, 2013; 장영림, 2014) 신순옥(2013)이 중년을 대상으로 한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에서도 생성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해련(2014)의 연구에서도 생성감은 노화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장익, 2012).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생성감 획득은 중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다음 발달 단계인 노년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통해 전환기에 요구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생성감을 촉진함으로써 노화불안을 감소시켜 중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또한,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죽음 불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죽음을 피하려 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죽음에 대한 반응이다(이은경, 2002). 중년기의 죽음에 관한 생각과 태도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죽음불안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숙주, 2010; 이경숙, 2013). 죽음불안은 죽음과 관련된 측면들을 예상하거나 생각할 때 유발되는 불편감과 공포, 염려,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이다(Templer, 1970). 상실, 고통, 불운, 실패에 삶의 의미는 부적 영향을 준다(신경일, 이정지, 최순옥, 김숙남, 2003). 죽음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삶의 의미로 삶의 의미 발견 수준이 높고 확실할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홍, 박영희, 2018).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낮았다(한미정, 최정윤, 1999). 김대복(1992)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는 노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노인 집단보다 죽음불안이 낮음을 밝혔다. 중년기는 죽음을 간접 체험하고 노화를 겪는 시기다. 젊음의 상실을 애도하고 생명의 유한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중년기 위기의 핵심이기도 하다(김애순, 윤진,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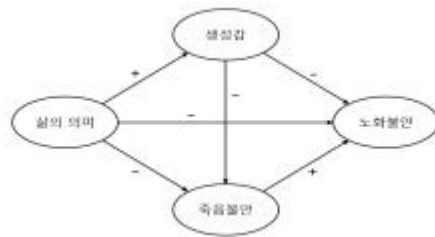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노화를 죽음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불안도 함께 높게 느낀다.(Greenberg, Schimel, & Mertens, 2002).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죽음불안,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죽음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조인희, 김영진, 2016). 따라서 중년기 노화불안 연구에서 죽음불안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특히, Erikson은 생성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불멸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생성감 증진 방안으로 사회활동과 같은 생산적인 일을 제안했다(McAdams & de St. Aubin, 199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은 생성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김미령, 2018) 자아통합에 정적인 영향, 죽음불안에는 부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김승용, 고기숙, 2008). 사회활동과 죽음불안의 관계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죽음불안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길, 2013). 독일, 체코, 카메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성감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하여 죽음불안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다(Buscha, Hofer, Poláčková Šolcováb & Tavel, 2018). 지금까지는 생성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적 가치가 있다.

노화불안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와 문헌을 살펴보면, 노화불안과 인구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개별적 상호관련성은 파악되었으나 변인 간의 직, 간접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중년기의 노화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노화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을 중심으로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보았듯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경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상 특성에 따른 상담적 개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관련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밝혀, 신체적, 심리·사회적 전환기를 겪는 중년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화불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과 죽음불안이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지와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경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가설 1.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노화불안, 생성감, 죽음불안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3.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죽음불안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4.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과 죽음불안은 이중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5.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노화불안, 생성감, 죽음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노화불안, 생성감, 죽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년기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인들을 통한 임의 표집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4

월 1일부터 4월 21일이고 총 401부 중 40세 미만이거나 60세를 초과한 경우, 불성실하거나 누락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76부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376명 중 남자는 182명(48.4%), 여자는 194명(51.6%)이었고, 연령은 40대 122명(32.4%), 50대 이상 254명(67.6%)으로 평균 나이는 52.12세(SD=5.98)이다. 거주지역은 서울 191명(50.8%), 경기도 107명(28.5%), 그 외 지역 78명(20.7%)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 MLQ)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의미 척도는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를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개발 당시 의미 추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고, 의미발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는 .90이고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둘 다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나. 노화불안 척도 (Anxiety about Aging Scale : AAS)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화불안 척도는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AAS)로 김욱(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Lasher와 Faulkender(1993)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고 김욱(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다. 생성감 척도(Loyola Generativity Scale: LGS)

본 연구에 사용한 생성감 척도는 McAdams와 Aubin(1992)이 개발한 로올라 생산성 척도(Loyola Generativity Scale: LGS)를 오경석(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고 오경석(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라. 죽음불안 척도 (Death Anxiety Scale, DAS)

본 연구에 사용된 죽음불안에 관한 측정도구는 Templer(1970)가 개발한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고효진, 최지욱, 이홍표(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Templer(1970)의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고 고효진 등(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의 반응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분석할 때 잠재 변수의 측정 지표 증가는 모형 복잡성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하여 절댓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순차적으로 묶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김수영, 2017), 유사한 수준의 부하량을 가진 3개의 문항 묶음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감과 죽음불안에 대해 문항 묶음을 하여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고,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은 각 하위 요인을 측정 지표로 하였다. 다섯째,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거

쳐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후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해서 간접 경로들의 개별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일곱째, 삶의 의미가 생성감, 죽음불안을 통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생성감의 하위 요인인 창의성($t=2.691, p<.01$),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인 죽음 생각의 부인($t=-2.32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창의성에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높았고, 죽음 생각의 부인에서 여자집단이 남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변인	남자(N=182)		여자(N=194)		t
	M	SD	M	SD	
삶의 의미 전체	5.48	.85	5.46	.84	.214
의미 추구	5.55	.89	5.52	.91	.214
의미 발견	5.52	.91	5.40	.93	.078
생성감 전체	3.52	.56	3.51	.56	.239
지식과 기술의 전수	3.59	.70	3.46	.70	1.871
공동체 향상에 헌신	3.52	.64	3.55	.65	-.544
기억되는 유산	3.45	.62	3.45	.62	-.507
창의성	3.71	.74	3.51	.77	2.691**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3.54	.60	3.54	.60	.042
죽음불안 전체	2.91	.58	3.02	.60	-1.886
죽음에 대한 두려움	3.05	.83	3.19	.81	-1.730
죽음 연관 사건에 대한 두려움	2.51	.69	2.63	.77	-1.564
죽음 생각의 부인	3.12	.84	3.33	.90	-2.325*
짧은 시간 지각	3.54	.89	3.47	.87	.765
노화불안 전체	2.70	.55	2.72	.44	-.527
상실에 대한 두려움	2.73	.80	2.81	.64	-1.076

노인에 대한 두려움	3.08	.77	3.09	.65	-.086
심리적 불안정	2.51	.65	2.45	.60	.923
외모에 대한 걱정	2.46	.73	2.55	.63	-1.165

*p<.05, **p<.01, ***p<.001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2보다 크고 첨도의 절댓값이 7보다 큰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Kline, 2011).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왜도 $-.36 \sim .09$, 첨도 $-.77 \sim .53$ 으로 변인들의 분포는 정상분포의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는 생성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62, p<.01$), 죽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r=-.17, p<.01$), 노화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r=-.39, p<.01$)을 보였다. 생성감은 죽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r=-.25, p<.01$), 노화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46, p<.01$). 죽음불안은 노화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r=.51, p<.01$)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1. 삶의 의미	1.00			
2. 생성감	.62**	1.00		
3. 죽음불안	-.17**	-.25**	1.00	
4. 노화불안	-.39**	-.46**	.51**	1.00

**p<.01

3.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 변인인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과 해당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평가 때 χ^2 값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63.835(p<.001)$, $df=48$, $TLI=.936$, $CFI=.953$, $RMSEA=.080$ 으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여 .5 이상, 각 측정 변수의 유의성(t값)이 1.96 이상, 평균 분산 추출(AVE)는 .5 이상, 개념 신뢰도(C.R.)는 .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5). 요인부하량은 .329~.932, 유의성(t값)은 5.701~27.959, 평균 분산 추출(AVE)은 .608~.727, 개념 신뢰도(C.R.)는 .841~.972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 AVE 및 C.R.을 고려했을 때 측정 모형이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

잠재 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AVE	C.R.
삶의 의미	→ 의미 추구	1	.755			.727	.841
	→ 의미 발견	1.247	.899	.092	13.598***		
생성감	→ 생성감1	1	.932			.922	.972
	→ 생성감2	.977	.868	.038	25.730***		
	→ 생성감3	1.007	.901	.036	27.959***		
죽음불안	→ 죽음불안1	1	.885			.807	.926
	→ 죽음불안2	1.014	.796	.059	17.156***		
	→ 죽음불안3	1.034	.775	.062	16.650***		
노화불안	→ 상실두려움	1	.702			.608	.852
	→ 노인두려움	.463	.329	.081	5.701***		
	→ 심리불안정	.898	.728	.076	11.81***		
	→ 외모걱정	1.008	.755	.083	12.093***		

주. ***p<.001

4.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63.835(p<.001)$, $df=48$, TLI=.936, CFI=.953, RMSEA=.080(.067 ~.094)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모형에서 잠재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삶의 의미는 죽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beta=-.024$, $p>.0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설정한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뜻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 모형이 더욱 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문수백, 2009). 간명한 모형으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잠재 변수 간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 연구 모형과 기존의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 모형	163.835***	48	.936	.953	.080
수정모형	163.904***	49	.938	.954	.079
Δ	.069	1	.002	.00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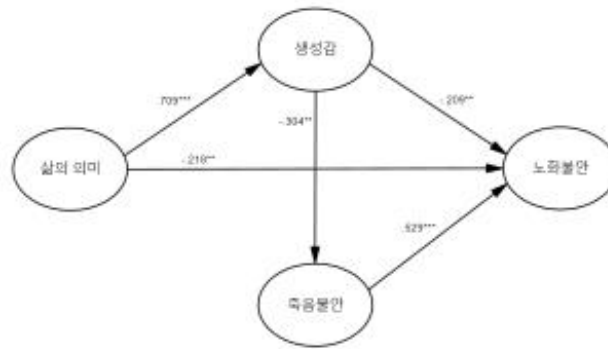
<표 4>에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며, 유의수준 .05에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Delta\chi^2$ 값이 3.84 이상(자유도 1일 경우 기각치)으로 나타나야 한다. 현재 두 모형 간의 $\Delta\chi^2$ 는 .06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정모형의 간명성은 자유도 1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된 구조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잠재 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에서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생성감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beta=.709$, $p<.001$)을 미쳤다. 또한, 생성감은 죽음불안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beta=-.304$, $p<.001$)을 주었다. 이는 생성감이 증가할수록 죽음불안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노화불안에 대해서 생성감은 유의한 부적 영향($\beta=-.209$, $p<.01$), 죽음불안은 유의한 정적 영향($\beta=.529$, $p<.001$), 삶의 의미는 유의한 부적 영향($\beta=-.218$, $p<.01$)을 미쳤다. 이는 삶의 의미와 생성감이 증가하고, 죽음불안이 감소할수록 노화불안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5> 최종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삶의 의미	→ 생성감	.568	.709	.046	12.423***
생성감	→ 죽음불안	-.309	-.304	.057	-5.455***
생성감	→ 노화불안	-.195	-.209	.073	-2.682**
죽음불안	→ 노화불안	.485	.529	.056	8.651***
삶의 의미	→ 노화불안	-.163	-.218	.059	-2.755**

** $p<.01$, *** $p<.001$



p<.01, *p<.0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그림 2> 최종모형 검증 결과

5. 매개효과 검증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 변인 간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N=376)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한 1,000개의 부스트랩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에 제시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죽음불안에 미치는 부적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215$, 95% CI = $-.298 \sim -.142$, $p < .01$). 삶의 의미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제거되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불안 간에 생성감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통해서만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262$, 95% CI = $-.394 \sim -.125$, $p < .01$). 그러나, 총 간접 효과의 유의성은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의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후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생성감이 죽음불안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에 미치는 부적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161$, 95% CI = $-.240 \sim -.097$, $p < .01$). 이때, 생성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여($\beta = -.209$, 95% CI = $-.392 \sim -.031$, $p < .05$), 죽음불안은 생성감과 노화불안 간에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텀 변수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111$, 95% CI $=-.208\sim-.020$, $p<.05$)는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여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 간에 생성감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순차적으로 거쳐 노화불안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085$, 95% CI $=-.140\sim-.045$, $p<.01$)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표 6>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 효과 (95% 신뢰구간)	간접 효과	총효과
삶의 의미 → 생성감	.709** (.629 ~ .782)	-	.709** (.629 ~ .782)
생성감 → 죽음 불안	-.304** (-.410 ~ -.202)	-	-.304** (-.410 ~ -.202)
죽음불안 → 노화 불안	.529** (.369 ~ .643)	-	.529** (.369 ~ .643)
삶의 의미 → 생성감 → 죽음불안	-	-.215** (-.298 ~ -.142)	-.215** (-.298 ~ -.142)
삶의 의미 → 생성감 → 죽음불안 → 노화불안	-.218* (-.443 ~ -.040)	-.262** (-.394 ~ -.125)	-.481** (-.619 ~ -.348)
생성감 → 죽음불안 → 노화불안	-.209* (-.392 ~ -.031)	-.161** (-.240 ~ -.097)	-.370** (-.541 ~ -.176)

* $p<.05$, ** $p<.01$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표 7>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삶의 의미 → 생성감 → 노화불안	-.111*	.049	-.208	-.020
삶의 의미 → 생성감 → 죽음불안 → 노화불안	-.085**	.024	-.140	-.045

* $p<.05$, ** $p<.01$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6.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가. 구조동일성 검증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하였다.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 가정이 만족되었으므로, 집단 간 잠재 변수 간 경로 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약을 가하는 순서는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경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죽음 불안에서 노화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제약한 구조동일성 모형(4)와 해당 경로를 제약하지 않은 모형(3) 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는 1이며, 유의수준 .05에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Delta\chi^2$ 값이 3.84 이상(자유도 1일 경우 기각치)의 차이를 보여야 한다. 현재 두 모형 간의 $\Delta\chi^2$ 는 5.495로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죽음불안에서 노화불안으로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여자집단($\beta=.408, p<.001$)보다 남자집단($\beta=.601, p<.001$)에서 죽음 불안이 노화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구분	순차적 동일화 제약 경로	$\chi^2(df)$	$\Delta\chi^2(\Delta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판정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		229.170***(106)		.939	.951	.056 (.046~.066)	
구조 동일성 모형(1)	생성감 ->노화불안	229.22***(107)	.05(1)	.940	.951	.055 (.045~.06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2)	생성감 ->노화불안 삶의의미->노화불안	230.746***(108)	1.576(1)	.940	.951	.055 (.045~.06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3)	생성감 ->노화불안 삶의의미->노화불안 생성감 -> 죽음불안	231.443***(109)	.697(1)	.941	.951	.055 (.045~.06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4)	생성감 ->노화불안 삶의의미->노화불안 생성감 -> 죽음불안 죽음불안->노화불안	236.938***(110)	5.495(1)	.939	.949	.056 (.046~.065)	기각
구조 동일성 모형(5)	생성감 ->노화불안 삶의의미->노화불안 생성감 -> 죽음불안 죽음불안->노화불안 삶의의미 -> 생성감	237.598***(111)	.660(1)	.940	.949	.055 (.046~.065)	채택

***p<.001

<표 9>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남자집단				여자집단			
	B	β	S.E	t	B	β	S.E	t
삶의의미-> 생성감	.550	.676	.065	8.417***	.586	.734	.065	9.019***
생성감 -> 죽음불안	-.255	-.261	.079	-3.239**	-.358	-.344	.08	-4.451***
생성감	-.189	-.168	.114	-1.659	-.226	-.318	.084	-2.685**
죽음불안 ->노화불안	.694	.601	.097	7.172***	.278	.408	.058	4.806***
삶의의미	-.130	-.142	.093	-1.400	-.178	-.315	.068	-2.608**

p<.01, *p<.001

나. 남녀 집단별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검증

남녀 집단별로 구분한 후, 팬텀 변수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개별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남자 모집단(N=182), 여자 모집단(N=194)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한 1,000개의 부스트랩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남자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B=-.104$, 95% CI $=-.249\sim.050$, $p>.05$)는 유의하지 않아서, 남자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통해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순차적으로 거쳐 노화불안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097$, 95% CI $=-.190\sim-.040$, $p<.01$)는 유의하였다.

여자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B=-.132$, 95% CI $=-.268\sim-.012$, $p<.05$), 삶의 의미가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순차적으로 거쳐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B=-.058$, 95% CI $=-.129\sim-.018$, $p<.01$)는 남자집단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여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10> 남녀 집단별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남 자	삶의 의미 → 생성감 → 노화불안	-.104	.077	-.249	.050
	삶의 의미 → 생성감 → 죽음불안 → 노화불안	-.097**	.038	-.190	-.040
여 자	삶의 의미 → 생성감 → 노화불안	-.132*	.064	-.268	-.012
	삶의 의미 → 생성감 → 죽음불안 → 노화불안	-.058**	.028	-.129	-.018

* $p<.05$, ** $p<.01$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40세~60세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고 생성감과 죽음불안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함으로써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을 낮추는 효과적인 상담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와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을 살펴보면, 생성감의 하위 요인인 창의성에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죽음불안의 하위 요인인 죽음 생각의 부인에서는 여자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중년 남성은 여성과 달리 가정 내 역할보다 일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고(지은주, 2018) 자기효능감을 갖는다(박은선, 2014; 박정희, 설정희, 천성문, 2017). 중년 남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직업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신교수, 한태영, 2015). 죽음 생각의 부인은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죽음 관련 생각과 감정에 더 휘말리는 여성집단(기노진, 2012 ; 장휘숙 2000)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덜 느끼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죽음불안을 높인다(임송자, 2012).

둘째, 삶의 의미,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삶의 의미,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개별 매개효과, 죽음불안의 개별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생성감은 매개하지만 죽음 불안은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죽음 불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가 생성감에 영향을 준다는 Stockman(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중년 여성이 이웃에 개방적이고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 기여를 확신할 때 높은 생산성을 경험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여정숙 등, 2013; 최지연, 2019). Fisher(1995)는 성공적인 노화에 생성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는데 장익(2012)의 연구에서도 생성감은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삶에 의미를 더 강하게 들수록 우울, 고독,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감소하고 삶에 대한 긍정성의 증가로(김윤희, 이지연, 2025; 박선영, 2013; 손슬기, 2014; 원두리 등 2005), 자신을 확장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성감을 높임으로써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노화 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과 죽음불안을 통한 순차적 이중 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생성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죽음불안이 감소함으로써 노화불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삶의 의미가 생성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Stockman, 2008), 생성감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승용, 고기숙, 2008; 이영길, 2013), 죽음불안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기노진, 2012; 남경민, 2017; 조인희, 김영진, 2016) 지지함을 의미한다. 생성감이 노화불안 감소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규명됨으로써 중년기에 생성감 획득이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순차적 매개 과정을 확인함에 따라,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죽음불안에서 노화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남녀의 경로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남자집단의 죽음불안이 노화불안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중년 남성의 노화불안을 완화하는 상담적 접근에서 죽음불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 개입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녀 각 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노화불안에 영향을 줄 때 생성감, 죽음불안의 개별 매개효과 및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남자집단의 경우,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자집단에서는 생성감의 개별 매개효과와 더불어 생성감과 죽음불안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자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 생성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순차적 과정을 고려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남성의 노화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생성감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년기 남성을 위한 다양한 생성감 촉진 프로그램과 죽음불안을 낮출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기 여자의 경우 생성감을 높이거나, 생성감과 죽음 불안의 순차적 과정을 고려한 개입이 노화 불안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년기 남자의 경우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울 때, 삶의 의미를 통해 생성감을 높임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는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여자의 경우는 생성감을 높이기

나. 생성감을 통해 죽음불안을 완화하는 개입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빈안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죽음불안 척도처럼 기본척도가 너무 오래되거나 우리 문화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에 적합한 최신의 척도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세~60세로 한정하여 중년기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법정 정년이 65세로 상향 추진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 2025) 흐름에 맞춰서 중년의 시기를 더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년기 성인 삶의 의미, 생성감, 죽음불안, 노화불안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고,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와 생성감과 죽음불안이 이중 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달리하거나 척도를 달리 사용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죽음불안에서 노화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연구 결과로는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화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해자(2012).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7, 191-220.
- 고용노동부(20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고효진, 최지옥, 이홍표.(2006).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 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15-328.
- 국가인권위원회(2025). 법정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 권고.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r
- 기노진(2012). 성인 남성들의 죽음불안과 노화불안.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복(1992).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2018).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가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66, 59-84.
- 김수영(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순이(2005). 일 지역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7-15.
- 김승용, 고기숙(2008). 지역사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25, 51-73.
- 김애순, 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281-291.
- 김애순(2015). 장·노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욱(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1), 71-94.
- 김운희, 이지연(2025). 초기 성인기의 삶의 의미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와 죽음수용의 조절효과. 한국과 세계, 7(2), 463-494.
- 김윤정, 강인, 이창식(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 - 75.
- 김은미(2005). 중년기의 특성과 적응을 위한 제안(1). 신학정론, 23(2), 201-221.
- 김인홍, 박영희(2018). 중년기 성인의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91-291.
- 김화선, 최은정, 양정남(2009). 노화사실인지정도와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1), 135-165.
- 남경민(2017). 중년 성인의 죽음불안, 노화불안, 중년기 위기감, 실존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도선(2017). 중년기 노후준비가 심리적 안녕감과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와 남녀 집단 비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선영(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선(2014). 중년 남성의 나이듦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설정희, 천성문(2017).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이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

- 연구, 24(1), 135-150.
- 손슬기(2014).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미(2012). 중년 기혼여성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2015). 성인여성의 노화불안: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29-346.
- 신경일, 이정지, 최순옥, 김숙남(2003). 노인의 생의 의미: Q방법론적 접근. 상담학연구, 4(4), 631-648.
- 신교수, 한태영(2015). 직무열의와 생성감이 중장년 근로자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매개효과 및 성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4), 11, 609-634.
- 신순옥(2013). 중년기 노화불안요인 탐색 및 노화불안과 노후준비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상담대학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학진(2012).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 33 - 63.
- 여정숙, 김병석, 최희철(2013). 중년기 성인의 영성, 삶의 의미, 상징적 불멸성과 생산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 기독교상담학회지, 24(4), 101-120.
- 오경석(2002).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 이야기. 한국노년학, 22(2), 113-129.
- 오은아(2020). 중년기 노화불안 척도 개발 및 노화불안과 웰에이징의 관계 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혜령, 유나현(2023). 내면화된 수치심이 중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반추적 반응양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161-174.
- 우종필(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지연(2018).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화불안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희(2016). 중년기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1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주(2010). 중년기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길(2013). 노인의 사회활동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5(1), 13-25.
- 이용재(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53-261
- 이은경(2002).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이선화(2017). 중년기의 부부친밀감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지, 6(2), 35-54.
- 이혜련(2014). 중년남성의 생성감이 삶의 만족도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송자(2012).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43-255.
- 장영림(2014). 중년기 여성의 영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생산성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익(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생성감과 노화불안.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2021). 중년후기 성인의 건강상태, 노화불안, 사회관계망, 생성감 및 행복.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4, 392-401.
- 장휘숙(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장휘숙(2007). 중년성인과 노인의 SOC전략과 생활만족: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31-144.
- 전성민, 박정윤(2024). 중년 여성의 행복감과 삶의 의미가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4), 49-67.
- 조진희(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희, 김영진(2016).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죽음불안이 중년기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2), 179-188.
- 주양숙(2014). 중년기 남성의 종교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은주(2018). 중년기 남녀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199-244
- 최윤영, 이현우(2025). 한국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계 연구: 병렬과정 잠재성장모형 적용.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1(6), 86, 71-782.
- 최은영, 한지영, 유순화(2025). 중년 여성의 자기인식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6(1), 97-118.
- 최정아, 전해성(2020).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3), 317-337
- 최지연(2019). 중년 여성의 영성과 생성감의 관계에서 감사와 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4). 생명표. www.index.go.kr
- 한미정, 최정윤(1999).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67-181.
- 황춘화(2003). 중년 위기 극복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2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보도자료, www.mois.go.kr
- Buscha, H., Hofer, J., Poláčková Šolcováb, I., & Tavel, P(2018). Generativity affects fear of death through ego integrity in German, Czech, and Cameroonian older adult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77, 89 - 95.
- Erikson, E. H(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 - 121.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sher, B. J(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1(3), 239 - 250.

- Frankl, V. E.(1959).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Greenberg, J., Schimel, J., & Martens, A.(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3 - 26). Cambridge, MA: MIT Press.
- Klemmack, D. L., & Roff, L. L.(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objective well-being on later life. *J Gerontol*, 39(6), 756-758.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tre, J(1999). Generativity and the Gift of Meaning. *Jouranl of American Society on Aging*, 23(4), 65 - 70.
- Kurger, A(1994). The midlife transition: crisis or chimera? *Psychology Report*, 75, 1299-1305.
- Lasher, K. P., & Faulkender, P. J(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 J Aging Hum Dev*, 37(4), 247-259.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 Levinson, M(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Random House.
- McAdams, D. P., & de St Aubin, E. D(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03-1015.
- McAdams, D. P., & de St. Aubin, E. D(1998).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eterson, B. E., & Klohnen, E. C(1995). Realization of generativity in two samples of wome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0(1), 20 - 29.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rler, M(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esota.
- Stockman, R. D(2008). *Gender, Generativity and meaning in life in the third age*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Minneapolis MN.
- Templer, D. I(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2), 165 - 17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Adult
-The Mediating Effects of Generativity and Death
Anxiety-**

Yang, Seong-soon · Hong, Hye-young

Yangcheon-gu Counseling and Caring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and death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adults and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s in this path. The data of 376 adults aged 40 to 60 were finally analyzed, and specific paths between variables were identifi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aging anxiety, the negativ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was significant. Furthermore, a double mediation effect was significant, with meaning in life reducing aging anxiety through generativity and death anxiety.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was not significant in the path from the meaning in life to aging anxiety.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men were more influenced than women by the pathway from death anxiety to aging anxiety. In both men and women,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aging anxiety through generativity and death anxiety was significant. In women,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was also significant. This study contributed to elucidat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meaning in life develops into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adults as well as gender differences in this process.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ograms aimed at reducing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adults and thereby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Key words : Middle aged adult, meaning in life, aging anxiety, generativity, death anxiety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참 고 문 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 고 문 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
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
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
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
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
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
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

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001$, $F(1,129)=2.71$, $t=4.52$).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이상은(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6권 2호

2025년 2월 25일 인쇄

2025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김은연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5호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금성인쇄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